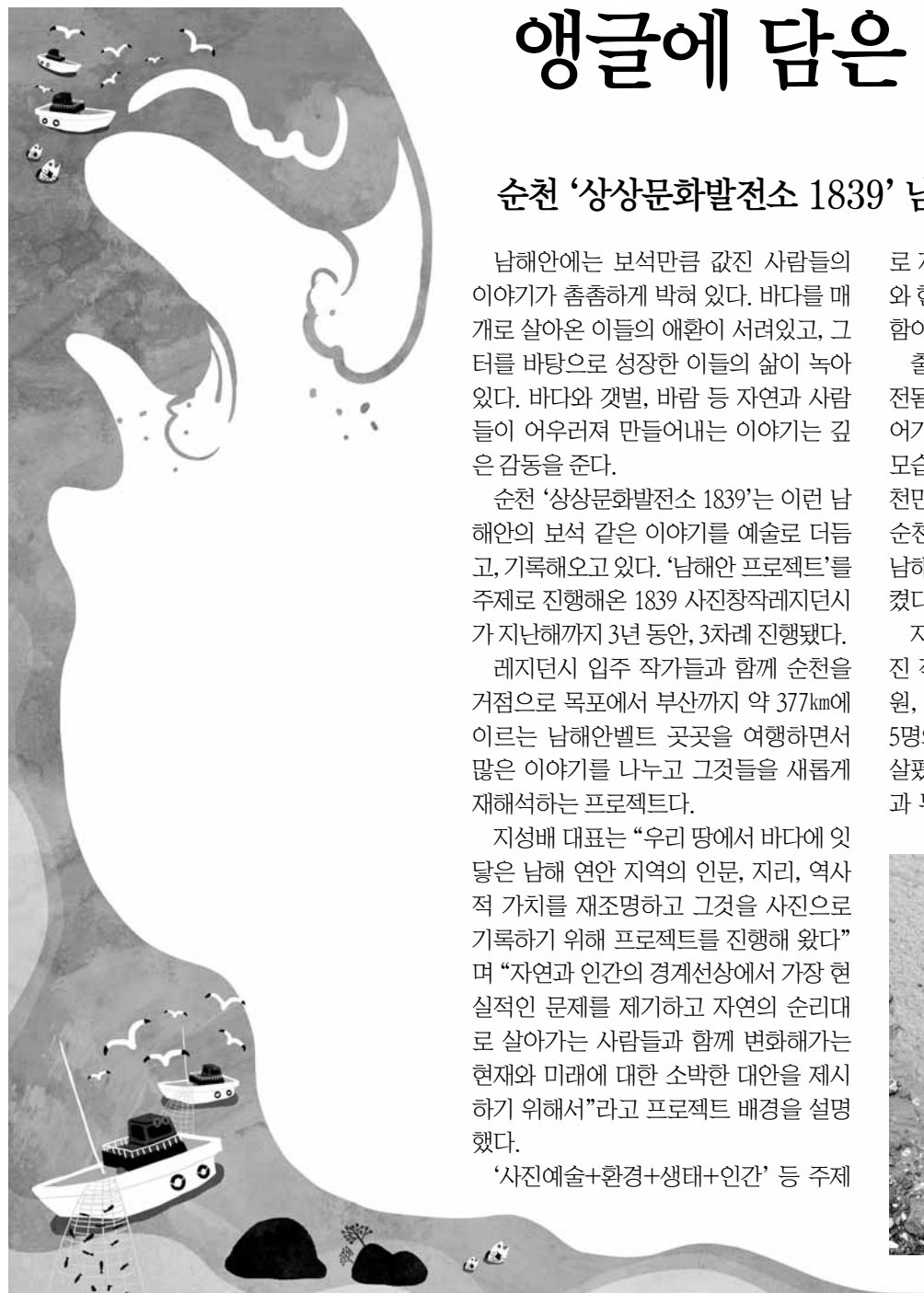




앵글에 담은 바다·갯벌·바람... 그 보석같은 이야기

순천 '상상문화발전소 1839' 남해안 프로젝트 전시회

남해안에는 보석만큼 값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 바다를 매개로 살아온 이들의 애환이 서려있고, 그 터를 바탕으로 성장한 이들의 삶이 녹아 있다. 바다와 갯벌, 바람 등 자연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준다.

순천 '상상문화발전소 1839'는 이런 남해안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예술로 더듬고, 기록해오고 있다. '남해안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해온 1839 사진장작레지던시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차례 진행됐다.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과 함께 순천을 거점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약 377km에 이르는 남해안벨트 곳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다.

지성배 대표는 "우리 땅에서 바다에 잇닿은 남해 연안 지역의 인문, 지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해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프로젝트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예술+환경+생태+인간' 등 주제

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다.

출발점은 순천만이다. 주변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순천만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인근 자연마을도 점차 변화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껴 처음에는 '순천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비단 순천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남해안 전체로 프로젝트 영역을 확장시켰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모두 10명의 사진 작가들이 다녀갔고, 지난해에는 김혜원, 유별남, 이경영, 정보석, 정일호씨 등 5명의 입주 작가들이 1년 동안 남해안을 살폈다. 작가들은 지난 1년 동안 워크숍과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저곳을 돌

3년째 목포~부산 377km 돌아

인문 지리 역사적 가치 재조명

15일까지 '스페이스 1398'

러했다. 두 그룹으로 나눠 순천~목포, 순천~부산을 여행했고,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기도 했다.

김혜원씨는 그동안 남해안의 인공 해수욕장과 그 주변의 인공 해변을 통해 금수강산의 의미와 가치를 살피기 위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유별남씨가 남해안에서 주목한 것은 경계다. 바다와 물의 경계, 하늘과 하늘이 아닌 곳의 경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자연을 작품에 담으려 애썼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을 살핀 작가도 있다. 정보석씨는 '순천만의 삶의

도구'를 찾아 작업했다. 시리고 거친 갯벌에 손을 담으며 살아온 이들과 그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준 갯벌이 그의 앵글에 담겼다.

이경영씨는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바다와 인접한 공간의 폐수 등 오염된 것들을 찾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정일호씨가 바라본 남해안의 갯벌은 '달의 무늬'와도 같았다. 땅에서 약 38만 km 떨어져 있는 달의 표면과 닮아 있는 갯벌의 무늬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무늬는 '관심', 갯벌은 '생명'의 관점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한편 상상문화발전소는 사진전문 갤러리 스페이스1839에서 오는 15일까지 레지던시 결과물을 선보이는 '남해안'전을 연다. 문의 061-742-1839.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정보석 작 '순천만 삶의 도구'



정일호 작 '달의 무늬'



유별남 작 '순천만의 밤'

그대 가슴에 하얀 눈이 내리면...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9일 강숙자오페라 라인서 새출발

매월 두번째 금요일 함께 모여 노래하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옥)는 지난 2012년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첫발을 댄 후 줄곧 그 자리를 지켜왔다. 2015년 72회 행사부터는 광주시 북구 강숙자오페라 라인(요한병원 맞은편 서광신협 4층) 공연장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9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그대 가슴에 하얀 눈이 내리면'이다.

함께 배우는 노래는 해마다 겨울이면 많은 가곡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효근 작곡가 <사진>의 '눈'이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 김 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이들을 어루만졌던 '내 영혼 바람되어'의 작곡자이기도 하다. '눈'은 김씨가 1981년 제1회 MBC 대학가곡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곡이다. 최근에는 바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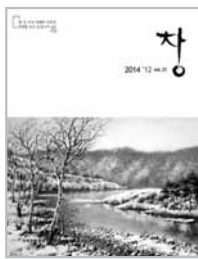
송기창의 노래로 연가곡집 '사랑 * 해'를 발표했다.

이날은 눈과 겨울을 주제로 한 곡들을 부른다. 정시운(유안초 2년)이 동요 '첫눈 오는 밤'과 '겨울밤'을, 소프라노 김남호(숙명여대 성악과 1년)씨가 '동심초'와 '눈'을 부른다. 또 박진영·백현·김희숙씨가 '눈꽃' '눈 오는 밤에' '눈꽃편지'를 선사한다. 그밖에 곡성군 청합창단(지휘 이계화)이 '그집앞' 등을 부르며 '옛동산에 올라' '옛이야기' '떠나가는 배'를 합창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가곡을 좋아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거리와 차를 제공한다.

한편 우리가곡 부르기회는 송년자선음악회 수익금을 아동양육시설 노년단 형제의 집에 전달했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문화담론 계간지 '창' 31호 나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발행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31호(사진)가 나왔다.

이번호는 특집기획으로 올해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의 관계'에 대한 이승관(조선대 교수)의 기조발제와 '전당과 공간'(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전당과 지역문화콘텐츠'(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문화사회정책연구실장), '전당과 관광'(안태기 광주대 교수), '전당과 네트워크 거버넌스'(김도일 문화평론가) 등 주장을 담았다.

'문화진단' 코너에서는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이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에 대해, '문화현장'에서는 정광민 광주건축가회장이 2014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통해 본 현대건축의 현주소와 미래의 가능성을 살폈다. 도시재생현장을 들여다보는 '신시와 게스트하우스', '밋밋들(방림2동) 어린이 인형극단'에 대한 소개도 만날 수 있다.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과 놀이패 신명의 배우 정찬일씨를 인터뷰했다. '창'은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강진 출신 김미승 시인

시집 '익어 가는 시간이 환하다' 펴내



강진 출신 김미승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익어 가는 시간이 환하다'(문학들)(사진)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전민자본주의를 겪으며 느끼는 삶의 불모성, 자기 소외와 고독에의 갈망 등 불편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응시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단순히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라는 실체를 새롭게 명명한다.

"곤한 잠 속으로 리드미컬하게 흘러드는/ 어머니 쌀 씻어 안치는 소리/ 새벽이 깨어나는 소리/ 목구멍이 열리는 소리..."('시름교양곡' 중에서)

'시름교양곡'에서 보듯 시인의 시선은 캄캄한 현실에 고정돼 있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한다. 이정록 시인은 이를 "현실이라는 우물에서 길어 올린 두레박 같은 시"라며 "생의 정곡에 컴퍼스의 중심을 찍고 그는 걷는다"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1999년 '작가세계'로 등단했으며, 시집 '네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를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